

업무협력협약서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조선일보사는 서울시민의 문화 보급 및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, 시민중심의 공공 문화서비스 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업무)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협력한다.

◇ 아시아프 개최 관련 협력 추진 내용

○ 주최 : 서울디자인재단 / 조선일보사

○ 전시 제목 : **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하는**

아시아프 (아시아 대학생·청년작가미술축제)

*ASYAAF (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
Art Festival)& Hidden Artist Festival

○ 개최 시기 : 2019년 7월 23일 ~ 8월 18일 (순 전시기간 24일 기준)

*전시장 인테리어 설치 및 철수일 제외

*공간운영상황에 따라 협의 후 일부 기간 조정 가능

○ 개최 장소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 (DDP) 디자인둘레길

○ 후원사 : 문화체육관광부(예정)

◇ 서울디자인재단 / 조선일보사 업무분담

○ 서울디자인재단 : 전시장 제공 및 디자인분야 조선일보사 진행 운영 업무 협조

○ 조선일보사 : 전시 예산 지출 및 전체 운영, 전시 홍보 등

◇ 2019년도 아시아프 & 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진행 내용 (예정)

- 전시 기간 : 2019년 7월 23일~8월 18일
 - 7월 23일(화)~8월 4일(일) 1부 (전시기간 12일)
작품반입 7월 22일, 반출 8월 4일
 - 8월 6일(화)~8월 18일(일) 2부 (전시기간) 12일
작품반입 8월 5일, 반출 18일
 - *인테리어 설치(2일) 및 철수일 (1일)제외
- 전시 장소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디자인둘레길
- 참여 작가 : 총 600명
 - 아시아프 : 아시아지역 대학생
및 대학원생, 35세이하 청년작가 500명
(*디자인분야 100명 추가됨)
 - 히든아티스트 : 36세이상 100명
(*해외작가는 갤러리엘비스(LVS)에서 진행)
- 모집 분야 : 평면(서양화, 한국화, 판화)
입체(조각, 설치)
미디어(영상, 사진)
디자인(전 분야 통합 *2019년 새로 추가함)
***영 디자인 챌린지를 아시아프에 통합 운영함**
- 작품 접수비 : 5만원 (아시아프, 히든아티스트 공통)
- 작품 판매수수료 : 아시아프 없음, 히든아티스트 20%
*중전 진행상황과 동일하게 유지
- 관 랑 료 : 성인 7000원 / 어린이 및 초중고생 (65세이상) 4000원

제3조 (협력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, 상기 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
하여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 (비용부담 및 수익금) 제2조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사업에서 발생하
는 지출은 조선일보에서 전액 부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소를 제공한다.
예산 지출 및 전시 진행에 따른 수입금에 대한 내용은 조선일보가 일괄적으

로 진행 처리한다.

제5조 (비밀의 준수)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,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양해각서 효력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.

제6조 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7조 (협약의 발표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상호간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한다.

제8조 (해지)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 (보관) 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4월

대표이사 최 경 란
서울디자인재단

사장 방 상 훈
조선일보사